전북대 전통 한옥형 캠퍼스 '윤곽'

한스타일 캠퍼스 조성사업 공청회… 정문 · 국제컨벤션센터 등 가장 한국적으로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추진하고 있는 한스타일 캠퍼스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전북대는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를 대학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큰사람교육개발원 겸 한옥정문을 비롯해 국제컨벤션센터, 법학전문대학원 신축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6일 오후 한스타일 캠퍼스 조성사업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전북대 한스타일캠퍼스 조성본부가 한스타일 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북대는 한스타일 캠퍼스 구축을 위해 국비 5백억여원의 국비 및 지방비를 조기 확보했고 대학 자체 대응투자와 발전기금을 통해 한국적 캠퍼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구축 계획에 따르면 현재 정문이 전통 한옥형으로 바뀐다. 국비 등 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다. 이곳에는 전북대 고유의 색깔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신설된 교양 프로그램을 통합·총괄하는 큰사람교육개발원이 들어선다. 오는 5월 착공해 내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생태·자연경관이 우수한 구 학군단 자리에 들어설 국제컨벤션센터는 1백87억6천만원 전액 국비가 투입돼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옥형의 지상 1층, 현대형의 지하 3층 규모로 컨벤션홀과 세미나실, 전시실, 식당 등을 갖춘다.

법과대학 본관과 성원법학전문도서관 사이에 지어지는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비 등 1백99억4천만원의 투입돼 지상 9층 지하 1층 규모로 들어진다.

전통 한옥 양식에 현대 건축 기술의 조화를 통해 전북대 캠퍼스가 품격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 분수대는 수경공간이 더해진 개교 70주년 기념광장으로 조성된다.

국비 등 35억원을 투입, 1만2천㎡ 규모로 지어지며 한국적 캠퍼스에 걸맞은 수경공간과 지당, 전통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분수대 옆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와 구정문 옆에 있는 해미아미 매장도 한옥형으로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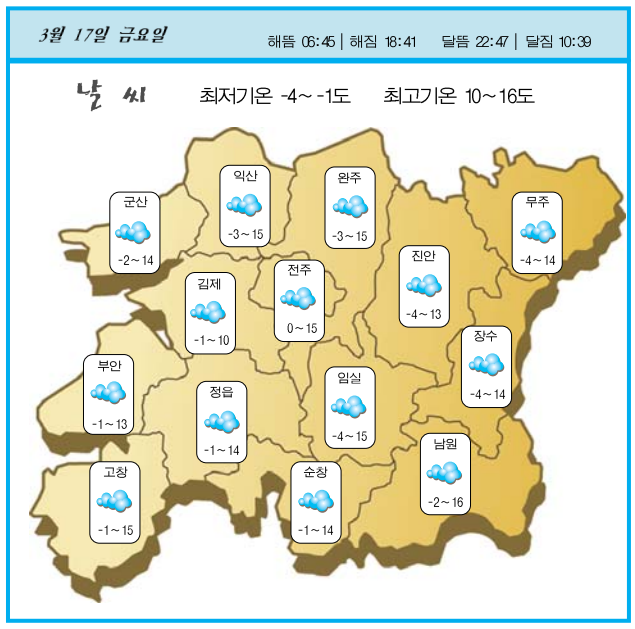
이와 함께 전북대는 캠퍼스 내부 곳곳도 한국적 정취를 물씬 담아냈다.

지난해부터 대학본부에서 사회대, 상대에 이르는 길의 보도를 정비하고 난간을 포함한 데크로드를 설치했다.

또한 이 길에 한국적인 창호문 형태의 가로등을 세워 야간에도 새롭고 고즈넉한 야경이 탄생했다.

이남호 총장은 "우리대학은 둘레길과 한국적인 캠퍼스 구축 등을 통해 가장 한국적인 지역의 문화적 요소와 공감대를 이루는 대학의 외형을 만들어 브랜드로 만들고 있다"며 "이를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우리 대학만의 명품 브랜드로 만들어 구성원뿐 아니라 시민들과도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해은기자



도교육청, 4월 학부모 교육 '풍성'

전라북도교육청의 4월 학부모 교육이 놀이법60+교육, 과학교육, 동화연극 자원활동, 독서교육 등으로 풍성하게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먼저 전주·군산·익산 3개시에서 아이들의 놀 권리 회복을 주제로 한 놀이법60+ 학부모 이해교육을 진행한다.

4월 11일부터 3개시에서 10차시 교육 형태로 진행되는 교육에는 노명우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이성촌 안전교육 전문가, 이경진 육아공동체 달팽이마을 대표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이와함께 생활 속의 과학원리를 통해 자녀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생활 속 사이언스맘' 자원활동가 교육도 있다.

4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에는 ▲꽃잎 구조와 확산의 원리 ▲심장의 구조와 역할 등을 주제로 주1회씩 10차시 교육이 준비돼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화연극' 자원활동가 교육도 추진되는데 4월 12일부터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6월까지 10차시 교육에는 ▲기본발성법 ▲인형극 놀이 등이 진행된다.

또 학부모 독서동아리 '책모임 마중물샘' 교육도 4월 17일부터 6월 중순까지 9차시 교육이 있다.

맞벌이 부모를 위한 '부모성장 달빛학교'도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간의 삶을 주제로 4월 28일 저녁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의 특강이 있다.

/정해은기자

전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청렴도 높인다

고교 교장 · 행정실장 대상 설명회…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규정 강화

전북도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청렴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오늘 도내 고교 교장과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오후 3시 도교육청 강당에서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의 주요 변경내용을 안내하고 현장체험학습 청렴도 향상 방안과 계약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수학여행 전세버스 입찰제도에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교육청·학교·전세버스운송조합·관광협회 관계자들로 TF를 꾸렸다.

TF는 올들어 세차례 협의회를 통해 청렴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먼저 각 학교의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이하 활성화위원회) 규정이 강화된다.

활성화위원회는 각 학교가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과 관련해 학교운영위에서 심의를 하기 전 계획 수립단계에서 시기·장소·일정 등을 조율하는 위원회다.

이번 규정 강화로 올해부터는 활성화위원회에 실시 학년 학생 및 학부모가 각 1명 이상 참여해야 하며 학교장 및 행정실장은 위원회 참여가 금지된다. 다만 실시 학급이 3학급 이하일 경우 학교장 판단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찰 단계에서 제안서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에서 제안서를 접수하도록 했다.

현장체험학습지원단 컨설팅도 강화돼 전체를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국외 수학여행의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지원단의 점검 및 컨설팅 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업체 선정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TF를 꾸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강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초등학생 등하교 안심서비스 6억9000만원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초등학생 등하교 안심서비스에 총 6억9,000만원을 지원한다.

16일 도교육청은 초등학생의 등하교 문자 알림과 비상경보 등을 알려주는 안심서비스시스템에 6억9,000만원을 편성해 총 134개 학교, 1만9,600여명에게 이달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자녀가 안전하게 학교에 도착 또는 하교했는지를 학부모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 KT 등 통신사의 중계기를 학교 안에 설치한뒤 개별 학생들에게 가방에 달 수 있는 단말기를 보급, 교문을 통과하면 학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를 제공하는 형태다.

이와 별도로 U-안심 알리미 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 지역이 교문 주변인 안심서비스와 달리 전국 위치 추적, 긴급 호출, 위치 전송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학생 1인당 월 5,500원, U-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월 8,800원의 이용료를 지원한다.

지역별로는 전주 금암초 등 40개 초교, 군산은 경포초 등 24개초, 익산은 이리신흥초 등 23개 초 등 총 1백34개 초교에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지원한다.

/정해은기자